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23
vol.257



AUDEMARS PIGUET
Le Brassus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VIRGO

LIBRA

SCORPIO



Zodiaque collection
Zodiaque medal and long necklace
Virginis (Virgo),
yellow gold, rose gold,
malachite.

LEO



CELINE



LOEWE



Fall Winter 2023
Photographed by David Sims



loewe.com



18



20



과감하고 현대적인 컬렉션이 패션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젝트. 오데마 피게가 디자이너 매튜 윌리엄스의 브랜드 1017 ALYX 9SM과 함께 다양한 자홍의 로열 오크 모델 두 가지와 로열 오크 오프쇼어 모델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의 유닉 피스 시계를 선보인다. 유닉 피스는 경계를 통해 만들어지며, 그 금액은 소외 계층 어린이를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기부될 예정이다. 문의 02-533-1351



40



14

- 15 **TRUE BLUE** 성실과 진실의 의미를 지닌 9월의 탄생석, 사피어 블루.
- 17 **TIME MACHINE**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투명함과 워치 메이킹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완성한 스칼렛의 매력.
- 18 **THE FAIRS ARE BACK!** 올해 2회를 맞아 보다 단단한 준비를 하고 나섰다. 프리즈 서울 2023(Frieze Seoul 2023)은 9월 6일 VIP 프리뷰를 거쳐 9일까지, 그리고 키아프 서울 2023(Kiaf SEOUL 2023)은 하루 더 길게 9월 10일까지 코엑스(COEX) 전시장에서 열린다.
- 20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강의 열전'** 올해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을 합친 참가 갤러리 숫자는 무려 3백30여 개. 소위 '키아프프리즈' 효과가 이어진 장외 무대를 서울의 미술 지도에서 중요한 세 지역(창동·한남·삼청) 지역별로 살펴보자.
- 22 **A MODERN AND REFINED AESTHETIC** 오데마 피게와 패션 브랜드 1017 ALYX 9SM의 디자이너 매튜 윌리엄스가 손잡고 정제된 미학을 그려낸 새로운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 24 **DREAM OF TWEED** 지난 7월, 서울에서 샤넬의 하이 주얼리 이벤트, 트윈드 샤넬(Tweed de Chanel)이 펼쳐졌다.
- 28 **EMBRACE THE LIGHT** 아이코닉한 삼별과 빛을 품은 주얼리에 대한 철학으로 확고한 컬렉션을 완성하는 주얼리 매종 쇼메의 비 마이 러브(Bee My Love) 컬렉션에서 새로운 주얼리를 선보인다.
- 30 **ELEGANT INNOVATION** 캔템퍼러리 파인 주얼리 브랜드 포엘라토에서 또 한번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이슬라(SCOLA)'를 선보인다.
- 32 **2023 F/W TREND REPORT FOR WOMEN & MEN** 인종, 나이, 성별 등 모든 것을 초월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흐름이 패션계에도 가득한 한 해였다. 영 & 올드(Young & Old)를 넘나드는 지금 이 순간, 2023 F/W 트렌드 하이라이트.
- 34 **BAG CRUSH**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실루엣, 과감한 컬러 초이스, 그리고 섬세한 디테일까지. 2023 F/W 이백 컬렉션.
- 38 **NEW CLASSIC** 셀러브의 2023 겨울 컬렉션에서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트리쿤프 시그니처를 포함한 백을 새롭게 선보인다.
- 39 **FROM HERITAGE TO THE FUTURE** 혁신적이면서도 아티스틱한 감성을 놓치지 않는 브랜드 MCM이 2023 A/W 시즌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을 선보인다.
- 40 **AUTUMN STORY** 기대와 반기움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시즌. 2023 가을 겨울의 뉴욕, 뉴스토리.
- 48 **RENEWING MOMENT** 일교차가 느껴지는 이맘때, 피부 컨디션을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화장대 위에 꼭 챙겨두어야 할 가을, 겨울 안티에이징 솔루션.
- 49 **BLOOMING FACE** 편의성은 물론 카바력, 지속력,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까지,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쿠션의 신세계.
- 50 **EDITOR'S PICK**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피부 컨디션이 고민이라면, 해결책이 되어줄 이달의 뷰티템을 만나보자.

Style 조선일보 Issue.257 September 202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리운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마케팅 | 박명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산비 분해재판 | 리은 인세 | 티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빙간로 413 현대 하이패션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일 창매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창매,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매혹의 숫자

숫자 5는 사철에 단순한 숫자 이상이다. 별자리 중 다섯 번째인 사자자리였던 가브리엘 사철은 5를 행운의 숫자로 여겼다. 사철의 패션 컬렉션은 어김없이 5월에 열렸고 옷, 주얼리, 백, 파퓸 등 사철 하우스에서 5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이번 숫자 5에서 무한한 영감을 얻어 파인 주얼리 컬렉션 N5를 선보인다.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물방울 모양의 펜던트와 숫자 5의 우아한 하모니가 돋보이는 18K 베이지골드 소재의 EXTRAIT DE N5 네크리스, 한쪽에는 숫자 5가, 다른 한편에는 물방울 모양의 세이프가 대조적인 아름다움을 전하며, 총 0.15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5개를 세팅해 우아한 볼륨감이 눈길을 사로잡는 비트윈 핑거링 디자인의 EXTRAIT DE N5 링.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BOLD ACCENT

클래식함 속에서 창의적이고 유쾌한 디자인으로 매번 우리를 즐겁게 하는 에르메스. 이번 2023 F/W 오브제 컬렉션에서 공개한 에르메스 플루 메도르 브레이슬릿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 셀렉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기존 메도르 컬렉션과 달리 스윙트 카프 스킨과 팔라툼 소재로 새로운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들어낸 것. 에르메스의 대표 모티브인 승마를 연상시키는 4개의 사각형과 가운데 고리가 조화를 이뤄 시크하며 중성적이고 강인한 여성의 매력을 뽐낸다. 2백99만원. 문의 02-542-6622



ROMANTIC CODE

사철의 2023~2024 F/W 레디투웨어 컬렉션은 하우스의 영원한 코드인 까멜리아의 낭만주의에서 영감을 얻었다. 데님 바위다 쇼츠를 까멜리아의 엠보싱 디테일로 마무리했고, 새틴 재킷에 까멜리아 자수를 올려 섬세하게 표현하거나 저지 롱 드레스와 부츠에는 프린트를 더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다채롭고 부드러운 컬러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소매에 화이트 플라워스를 두른 크레이프 드 신 소재의 레드·블랙·화이트 컬러 드레스 등이 있다. 그리고 쇼츠 수트부터 비대칭 롱 실크 슬릿 스커트와 매치한 숏 트윈드 체크 재킷에 이르기까지, 남성복의 코드가 느껴지는 실루엣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컬렉션은 9월 12일부터 사철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탈리아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또 하나의 협업

스위스 워치 브랜드 브리틀링(Breitling)에서 호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와 공동 디자인한 세 번째 에디션인 탑 타임 B01 데우스 워치를 출시했다. 이전 2개의 한정판이 완판되며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이번 컬렉션도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탑 타임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1980년대에 처음 출시되어 그 시대의 자유로운 정신을 보여주며 대담한 디자인으로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버전은 브리틀링 자사 칼리버 이을 추가해 성능적으로도 업그레이드된 것이 핵심. 이전 모델과 다소 다르게 클래식한 블랙 다이얼과 화이트 트라플 레자스터 서브 다이얼의 조화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특히 센터피스 크로노 핸즈의 특별한 반개 모양이 유난히 주목을 선사한다. 세 번째 칼리버레이션으로 돌아온 탑 타임 데우스 컬렉션은 전곡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다. 1천44만원. 문의 02-792-4371



SPARKLING SAND

이탈리아 밀라노의 정인 정신으로 빛낸 섬세하고 개성 넘치는 디자인의 주얼리를 선보이는 포말피토에서 새로운 사비아(Sabbia)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탈리아어로 모래를 뜻하는 기존 사비아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불규칙한 다이아몬드 파베를 더욱 돋보이게 구성한 것이 특징. 특히 포말피토만의 뛰어난 다이아몬드 세팅 기법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체인 제작 해리터치로 화려하게 구성된 정이 눈에 띈다. 모래 위로 떨어지는 햇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포말피토의 젤스톤 세팅 정인과 금세공 정인이 최고의 솜씨를 발휘해 비대칭 배열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했다. 다양한 크기와 컬러의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져 저마다 하하하가 작은 작은 피를 보는 듯한 매력을 선사하기도 한다. 특히 화려함의 끝을 보여주는 네크리스와 아이링이 주목해야 할 품. 새로운 사비아 컬렉션으로 포말피토 주얼리를 더욱 다양하게 즐겨보자. 문의 02-3143-9486



FERRAGAMO FIRENZE



로즈 골드 케이스에 핑크 다이얼과 스트랩이 돋보이는 레인드 내이션 라이트 핑크 8818 5천2백82만원 브레게.

화려한 디자인과 핑크 골드 컬러를 띠고, 크로아티아에서 제작된 핑크 로즈 골드 워치 150만원

핑크 로즈 골드 워치 150만원

크로아티아에서 제작된 핑크 로즈 골드 워치 150만원

핑크 로즈 골드 워치 150만원

80%가죽 소재에 핑크 컬러의 스트랩을 달아 핑크 로즈 골드 워치 150만원

핑크 로즈 골드 워치 150만원

시몬 스타로 로즈 골드 워치를 시아는 홀리웨이스트라스 바를 핑크 골드 2백만원

for her Selection

바비코어를 그대로 가져온 듯, 핑키하고 러블리한 그녀를 위한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sa yun



블드하고 각진 프레임이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스크린 선글라스 48만원 로에베.



여성스러운 플리워 향연의 메탈과 레진으로 이루어진 브로치 가격 미정 샤넬.



푸크시아 컬러가 돋보이는 폴리에스테르 소재 버블 크롭 톱 34만원대 셀프 포트레이트.



로즈 골드에 317개의 다이아몬드와 1개의 루빈 다이아몬드 총 0.19캐럿으로 완성한 핑크 로즈 골드 핑크 오벌 가격 미정 쇼파드.

핑크 로즈 골드 워치 150만원



카트 레네를 위한 스타일은 여의 시아로 독특한 느낌을 시아는 바비코어 아이템 핑크, 20X15, 30X11cm, 69만원대 반디.



18K 로즈 골드 에 레드 캐블리안과 골드로 완성한 5개의 클로버 모티프를 다한 반디 알함브라 브레이슬릿 7백만원대 반클립프 아펠.



구매처 1644-4490 배부 02-517-3983 디올 02-3280-0104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브레게 www.breguet.com 크리시찬 루부랭 02-6905-3795 소외로브스키 02-1522-9065 롱삼 02-513-2288 로에베 02-3479-1785 사셀 080-805-9628 셀프 포트레이트 02-6911-0749 맨디 02-544-1925 쇼파드 02-6905-3390 애센셀 엔트워프 02-3479-1362 반클립프 아펠 1877-4128



true Blue

성실과 진실의 의미를 지닌 9월의 탄생석, 사파이어 블루.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시계 방향) 피베르제 양배리업 아이링 총 0.13캐럿 4개의 라운드 사파이어와 총 1.16캐럿 1백42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아이링. 1백66개 사파이어 비즈의 테슬 디자인이 고급스러움을 배가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2-4706 쇼파드 해피 스포츠 워치 베젤에 총 40개 사파이어를 세팅해 도화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또 매중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다이얼 속 루빈 다이아몬드가 매력적이다. 3천5백73만원. 문의 02-6905-3390 핑키리 디바스 드림 아이링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오픈워크 스타일 에메랄드의 아이코닉한 부채꼴 모양이 우아한 여성미를 부여한다. 또 중앙에 화려하게 장식한 페어 컷 사파이어 존재감을 드러낸다. 3천7백50만원대. 문의 02-6105-2120 크로아티아 워치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14.13캐럿의 스몰카산 쿼츠 컷 사파이어를 센터 스톤으로 세팅했으며, 양쪽에 상하행의 1.36캐럿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뤄 우아한 멋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2256-6810 플로르 포에틱 가든 네그리 스자렌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석과 목표를 연상시키는 물방울 컷 스톤이 특징이다.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6.69캐럿 1백7개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17개의 사파이어를 세팅해 모던한 품격이 돋보인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2-4706 다이애니 미모사링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0.98캐럿 사파이어와 총 1.07캐럿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했으며, 움직임 때마다 반짝임이 더욱 배가된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에디터 윤자영

아이템에 대한



for him Selection

바비의 남자, 컨체럼 유행하고 쿨하면서도 소재에서 비롯된 멋스러움까지 챙기는 센스 넘치는 남자를 위한 추천. photographed by kim sa yun

프랑과 다리의 FF 로고로 포인트를 준 아이비색 캔버스 소재의 미니 백도우 신발은 6만 원대이다.

브랜트 로고 프론트미 볼보이는 캔버스 소재의 지퍼 미니 지갑. 8x2x12cm, 50만 원대이다.

부드러운 카본 스킨으로 흐르는 듯 유연한 실루엣을 자랑하는 패션쇼 백. 33x44x16cm, 3백만 원대이다.

카본 스킨을 각자로 엮어 아이코닉한 감성을 전하는 카세트 라탄 백. 20x30cm, 가격 미정 보타기 배너.

화이트 골드와 블랙 PVD를 레이어드하고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라탄로 블랙 라지 반지. 7백만 원대, 무제한.

스카프, 셔츠, 스웨터, 코트까지 아우팅을 위한 스타일 수트. 가격 미정 마루마.

로즈 골드 소재로 로고로 포인트를 준 링. 7백만 원대, 무제한.

세라믹을 양방향에 사용.

부드러운 면으로 만든 릴렉스 핏 20.3cm 카고 쇼츠. 27만 원대, 홀로 라벨 라벨.

드 빌 프레스티지 코-엑스 컴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텐 세라믹 41MM 1천만 원대 오메가.

부드러운 소재의 볼보이는 머플러. 가격 미정 조르지오 아르마니.

가죽을 사용한 미니 크로스 바디 백. 1백만 원대, 무제한.

부드러운 코튼 소재의 질감 롱 슬리브 셔츠. 1백만 원대, 무제한.

클래식한 디자인의 숄더 가방. 토마스 쾨퍼 1백만 원대, 무제한.

로코피니 02-6200-7799 밴디 02-544-1925 조르지오 아르마니 02-546-6777 힐프 로렌 라벨 라벨 02-3438-6235 오메가 02-6905-3301 마루마루 02-541-7443 모아나 02-2254-4150 보타기 배너 02-3438-7682 홀로 라벨 02-6004-0220 부세론 02-3467-8334 마루마루 02-3430-7854 몽블랑 1877-5408 이자벨 마방 울름 02-516-3737 불가티 02-6105-2120

Time Machine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투명함과 워치메이킹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완성한 스켈레톤의 매력.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 피아제 칼로 스켈레톤 풀로 워치의 스켈레톤 버전. 42mm 곡선형 스틸 케이스에 쿼츠형 다이얼로 기존 풀로 워치의 정제성을 그대로 담았다. 6.5mm 두께의 얇은 케이스에 정교한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장착, 피아제 자체 제작 1200S+ 기계식 셀프 와인딩 스켈레톤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42만 원대, 문의 1668-1874

리치드 밀 RM 35-03 오토매틱 라팔 나달 테니스계의 전설이 라팔 나달(Rafael Nadal) 선수의 위해 무려 3년 동안 개발해 선보인 타이피크스 케이스는 블루 워터 TPT®와 화이트 워터 TPT® 소재를 사용해 가벼우며, 신규 특허를 획득한 버터플라이 로터를 장착해 기술적으로 더욱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39만 원대, 문의 02-512-1311

파타이 루마노르 투르비용 GMT 골드테크™ 가운세로 47mm의 빅 사이즈 케이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아방아미마 카와 핸즈로 높은 가독성을 자랑한다. 브러시드 골드 칼라와 케이스, 블루 다이얼과 스트랩의 조화가 돋보이며, 파타이 인하우스 스켈레톤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인 P.2006/T 칼라바로 구동한다. 29만 원대, 문의 1670-7936

브리게 클러시 투르비용 엑스트라-플렉스 스켈레톤 5395 3mm 두께의 엑스트라-신 581 칼라버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전체 0.29g의 초경량 케이스를 완성해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보여준다. 무려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추었으며, 지름 41mm 18K 로즈 골드 소재 케이스에 브라운 악아자크 스텐을 매치해, 클래식한 스켈레톤 워치의 매력을 보여준다. 39만 원대, 문의 02-3479-1008

에기 로콜트 리베르 트라뷰트 크로노그래프 가운세로 29.9 X 49.4mm, 무게 9.79mm의 핑크 골드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과 스켈레톤 차원 다이얼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스켈레톤 다이얼은 칼라버 비로 위공중이 떠 있는 듯한 디스클로버로 시각적 깊이를 더한다. 에기 로콜트 칼라버 8800으로 구동한다. 5만 원대, 문의 1877-4201

제스 데리 스카티어인 스켈레톤 지름 41mm의 팔각형 스틸 케이스에 스켈레톤 무브먼트의 메인 플레이트와 브리지, 오픈된 형태의 별 모양 로터는 다이얼과 동일한 컬러로 재조합 일관되게 디자인을 완성했다. 비론 아워 마커와 중앙의 아워 및 미시 핸즈에는 슈파르마노버 코팅을 더해 가독성을 높였다. 1천만 원대, 문의 02-3479-6191

로저드커 엑스칼라버 오토매틱 스켈레톤 골든 우아한 핑크 골드를 입은 지름 42mm 케이스에 다이얼의 스켈레톤까지 핑크 골드를 적용해 통일성을 부여했다. 덕분에 투시성을 강조한 현대적 스켈레톤 매니저를 확인할 수 있다. 오토매틱 스켈레톤 RD82050 칼라버로 작동한다. 1억 1천만 원대, 문의 02-3479-1403 에티 샹젤리

키아프 서울(Kiaf SEOUL) X 프리즈 서울(Frieze Seoul) 2023

the Fairs are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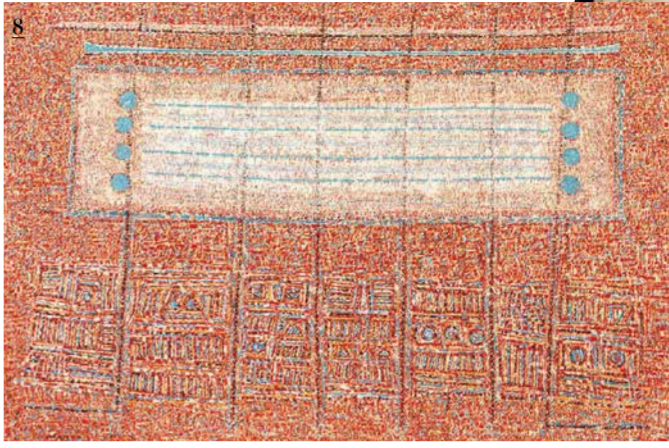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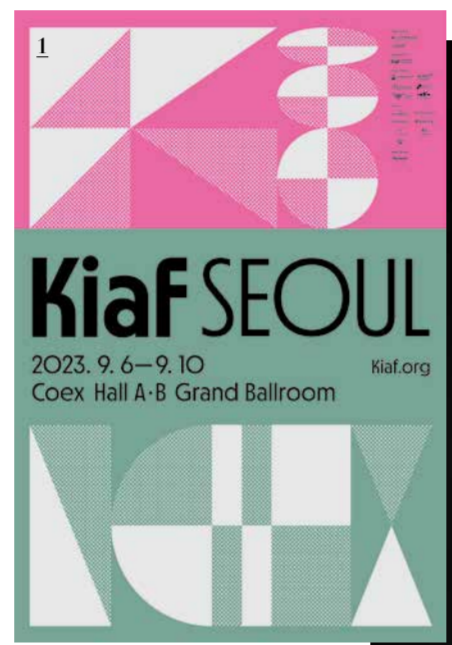
무더위가 미처 가시기도 전, 8월 한 달 내내 초가을 아트 시즌을 겨냥한 소식이 쏟아졌다. 마치 문화 예술 콘텐츠의 향연으로 숨통을 시원스레 틔우게 할 작정이라도 한 듯 갖가지 전시와 행사 소식이 그야말로 휘몰아치는 양상은 자연스레 글로벌 아트 페어 브랜드 프리즈(Frieze)의 입성으로 떠들썩했던 지난해 가을을 떠올리게 한다. 런던에서 출발한 프리즈의 아시아 시장 첫 진출지가 서울이 된 데다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아트 페어 키아프(Kiaf)와 공동 개최된다는 점에서도 단연 화제를 모았지만,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 모양새 탓에 강한 감론올박을 일으키기도 했던 초대형 행사.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올해 2회를 맞이해 보다 단단한 준비를 하고 나섰다. 프리즈 서울 2023(Frieze Seoul 2023)은 9월 6일 VIP 프리뷰를 거쳐 9일까지, 그리고 키아프 서울 2023(Kiaf SEOUL 2023)은 하루 더 길게 9월 10일까지 코엑스(COEX)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 기간을 전후로 현대미술은 물론 패션, 디자인, 미식 등 다양한 생태계를 아우르는 콘텐츠와 행사가 즐기차게 펼쳐지는 건 물론이다. 그저 하울만 좋은 현대미술의 장터가 아니라 '도시 축제'라 부를 만큼 양과 질 모두 빼어난 가을의 주인공으로 성장해나가기 바라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인기는 더 많은 아트 페어 작년 가을 인스타그램을 지배하다시피 했던 화제어 프리즈(Frieze). 저마다의 기대치는 달랐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위력은 강력했다. 해외의 메이저 아트 페어에서나 볼 수 있던 소위 '메가 갤러리'를 비롯해 여러 나라의 실력파 갤러리가 참여하니 프리뷰 데이부터 '오픈런'을 연출할 만큼 인파가 들끓었고, 다국적 만남이 이뤄지는 '아트 피플'을 위한 파티가 밤을 수놓았으며, 라이프스타일 영역의 다채로운 콘텐츠가 즐기기 좋았다. 또 그간 국내 아트 페어에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명품 브랜드들도 질세라 행사를 벌이며 저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미술계 인파에서 '아트 페어가 대체 뭐길래?'라는 반응이 절로 나올 법했다. 사실 아트 페어는 대형 전시장에 상업 화랑이 부스를 차리고 저마다의 '상품(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마켓 플레이스다. 그래서 흔히 '미술 장터'라고 불린다. 그런데 아트 비저널이나 프리즈 같은 글로벌 페어의 경우, 그 장터가 열리는 도시 전체를 축제의 장소로 만들 만큼 브랜드 파워나 확장 효과가 엄청나다. 프리즈 서울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첫 회였던 만큼 호기심이 민발했고, 아심 차게 공동 개최를 단행했던 키아프(Kiaf)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묻혀, 당연히 여기저기에서 찬소리가 쏟아졌다. 프리즈 서울 역시 미술계의 수준을 높였다는 인정과 별도로 달콤한 매출만 줄것을 뿐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투자하지 않아 주최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마디로 '누구를 위한 축제였을까?'라는 문장으로 압축할 만하다.



9월 둘째 주를 꽉 채운 '아트 주간', 몸집 줄이고 내실 키운 키아프 물론 첫 행보였던 만큼 숙단할 필요는 없다. 대다수의 산업 생태계처럼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런 만큼 성숙해지는 측면이 분명 있기 마련이다. 물론 실기 일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올해는 9월 둘째 주에 찾아온 키아프 서울 2023과 프리즈 서울 2023이 이끄는 서울의 아트 주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일단 키아프 서울은 몸집을 줄이는 대신 '젊고 역동적인' 페어로 거듭나고자 애썼다는 입장이다. 2백(0개 갤러리(20여 개 국가)가 참가하는데, 해외 갤러리 비중이 35%로 다소 늘었고(지난해 30%) 작년처럼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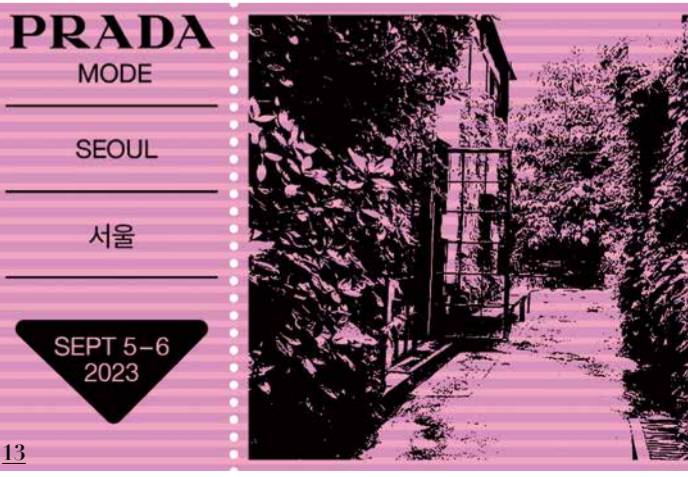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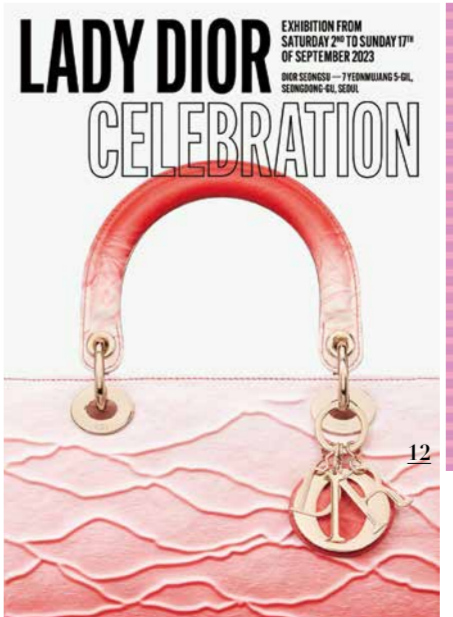
1 올해 2회를 맞이한 키아프 서울(Kiaf SEOUL) 2023의 공식 포스터. 2 공간해설가의 키아프 서울 출품작. Erwin Olaf, 'Ladies Hats, Jeremiah II-FC'(2020) 이미지 제공: 공간해설가 3 베를린과 서울 등에 전시 공간을 두고 있는 페라르프로젝트 서울의 키아프 서울 출품작. Anton Mular, 'Sordamente al lado tuyo / Deafly next to you'(2022) Courtesy Peres Projects 4 해외 아트 쇼룸 출품작. Masayuki TSUBOTA, 'The Layer of Self, v51'(2017) 5 키아프 서울에 선보이는 국제갤러리의 우고 라디노네 작품. Ugo Rondinon, 'east siberian seal'(2022), Blue glass, 81.3 x 126.9 x 34.6cm, Courtesy of Studio Rondinone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6 키아프 서울 2023의 뉴미디어 아트 특별전에 참가하는 이아신 작가의 작품 '각 시공기에 비추는 빛이 있소나니'(2022). 7 프리즈 서울 2023에 참가하는 스위스 태생의 세계적인 갤러리 하우스인 루이즈 부르주아스. Louise Bourgeois, 'Figure'(1954), Painted bronze and stainless steel © The Easton Foundation Courtesy The Easton Foundation and Hauser & Wirth Photo: Thomas Barratt 8 프리즈 마스터스에서 아심차게 부스로 꾸미는 갤러리의 작품. Nam June Paik, 'TV Buddha'(2005), Stone Buddha, closed circuit video camera, 13" monitor, and permanent oil marker © Nam June Paik Estate Courtesy the artist and Gagosian 9 올해 프리즈 서울에서 선보이는 기묘한 작품 'Milk and Honey 5'(2023). Courtesy of the artist Photo by LEE Seunghoon 10 다들은 9월 17일까지 서 울 성수동 콘텐트 스토어에서 'Lady Dior Celebration' 전시회를 선보인다. 다이오르 왕세자비가 착용한 전설적인 레디디오 백을 모티브로 박상기, 하중현, 최정화, 강서경, 제이디 차 등 한국 아티스트 24명과 협업해 완성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 가능하다. 11 올해 프리즈 서울에서 선보이는 '1회 수상 작가 우한'의 작품 'Milk and Honey 5'(2023). Courtesy of the artist Photo by LEE Seunghoon 12 다들 9월 17일까지 서 울 성수동 콘텐트 스토어에서 'Lady Dior Celebration' 전시회를 선보인다. 다이오르 왕세자비가 착용한 전설적인 레디디오 백을 모티브로 박상기, 하중현, 최정화, 강서경, 제이디 차 등 한국 아티스트 24명과 협업해 완성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 가능하다. 13 예술, 미식, 패션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프리즈 모드 행사가 9월 6일 일요일 서울 나들이를 했다. 프리즈 모드 서울에서는 이우경 큐레이터와의 협업으로 김태오, 민성호, 장희태 감독의 (다중과 평행) 전시가 기획됐다.

시장 두군데(코엑스와 SETEC)를 쓰지 않고 코엑스 A-B홀과 그랜드 볼룸을 포함한 1층 전체를 사용해 동선이 훨씬 더 편해졌다(kiaf.org). 참여 갤러리의 작가 중 20%를 선정해 지원하는 '키아프 하이라이트' 색션은 한국 현대미술을 적극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이배(조현화랑), 박서보(박어숙화랑), 윤형근(BH-AK), 서승원(PKM 갤러리), 장승태(학교재), 이강용(리안갤러리), 이숙자(선화랑) 등의 작가를 내세웠다. 이 중 30%의 작가는 키아프 조직위원장이 수여하는 '키아프 하이라이트 어워드(A'ward)'를 받게 된다. 젊은 작가와 갤러리를 지원하는 '키아프 플러스' 색션도 지난해에 이어 마련되며, 같이 다른 특별전도 열린다. 뉴 미디어 아트 전시 (Gray Box Area: 시간으로서의 공간), 그리고 전통 한국화의 우수성을 일깨우는 박성광, 박래현 특별전 (근대로의 색깔 고향)이다. 코엑스 전시장 밖에서는 인천 국제공항을 무대로 해 외부 손님을 인사를 건네는 사자점이 될 수 있는 (We Connect, Art & Future)전이 개최된다(8월 28일~9월 17일).

조금은 더 다채로워진 프리즈 서울의 행보 프리즈 서울은 지난해보다 살짝 많은 1백20개 갤러리가 한자리에 모이는데(코엑스 3층 CD홀), 아시아와 한국에 기반을 둔 갤러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페어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기묘한, 허우저엔시스, 데이비드 즈워너, 화이트 큐브, 페로랑, 리안버민, 페이스 등 쟁쟁한 글로벌 갤러리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프리즈 서울의 디렉터 패트릭 리(Patrick Lee)는 페어를 찾는 방문객들이 갤러리와 소통하는 경험을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규모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에는 북경이라고 지적했던 '동선 관리'에 좀 더 신경 썼다고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대부터 20세기까지 예술 작품을 아우르는 '프리즈 마스터스(Frieze Masters)'와 아시아 기반 젊은 갤러리의 솔로 부스를 선보이는 '포커스 아시아(Focus Asia)'가 특별 색션으로 함께한다. 메인 색션이든 특별 색션이든 한 갤러리에서 한 작가만을 선보이는 '솔로 부스'의 구성도 눈에 띈다. 이를 타인 메리 웨더포드(데이비드 코단스키 갤러리), 우디 오셀로(제시카 실버먼 갤러리), 저우위젠(카랑 말링게), 김지혜(프랑스어 가릴레), 이상재(갤러리현대)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www.frieze.com)에 프리즈 서울 참가 갤러리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프리즈 뷰잉룸'이 마련되어 있다. 올해는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프리즈 런던에 이어 서울에서도 아티스트 어워드를 신설했는데(명품 브랜드 불기리의 후원으로 수상 작가는 소정의 상금과 작품 전시 기회를 누리며), 첫 수상자로 우한나 작가가 선정됐다(이번 '포커스 아시아' 색션에서 작품도 선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는 젊은 작가 우한나에 대해 심리단은 "여성성에 대한 세심한 고민과 통념을 깨는 조각의 세계를 선보이는 작가의 매혹적인 패브릭 설치 작품을 지지한다"라고 평했다. 프리즈는 불기리 말고도 공식 헤드라인 파트너인 LG OLED와 글로벌 리드 파트너 도이치뱅크를 비롯해 다채로운 국내외 파트너십을 두고 있다. 프리즈의 파트너십 구도를 보면 확실히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는 마케팅 감각이 엿보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저명한 미술관 게티(Geety)와의 파트너십도 얼마 전 새롭게 발표했는데, 프리즈 서울 2023을 시작으로 2024년 9월 개최될 예정인 게티의 프로젝트 PST ART까지 이어지는 협업 프로그램이다. 프리즈는 PST ART 2024 에디션을 앞두고 예술과 과학의 충돌이라는 주제

아래 여러 도시를 넘나드는 커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비주얼 리서치 밴드인 이카비우르르(kkibawikrr)가 첫 주자. 그런데 아직 페어의 면면을 살펴보기 전인 이 시점에 프리즈와 키아프의 협업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첫 회처럼 공동 티켓팅과 무료 티켓 25만원, 일반 입장 8만원 시스템을 이어가는 데 더해, 올해는 키아프, 프리즈, 예술경영지원센터(KAMS)가 공동 기획한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도에 그친다. 전파게시 협업의 정수는 아마도 서울의 주요 갤러리와 미술관이 모여 있는 몇몇 거점에서 펼쳐지는 징의 프로그램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갤러리들이 늦은 밤까지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하는 한남 나이트(6일), 청담 나이트(6일), 삼성 나이트(7일) 같은 행사들을 비롯해 팝업 전시들이 넘쳐나고 아트 페어 기간을 전후로 서울아트위크, G갤러리 페스타 등 서울시와 강남구 문화 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아트 축제가 예술적 동행을 시도하고 있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렇듯 '도시 축제'라는 이상을 향한 다면적 행보는 아직 결말이 수놓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다채롭게 변하고 있는 듯하다. 글 고정현



A Modern and Refined Aesthetic

오테마 피계와 패션 브랜드 1017 ALYX 9SM의 디자이너 매튜 윌리엄스가 손잡고 정제된 미학을 그려낸 새로운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1 혁신적인 기술과 고품질 소재로 파격적인 피스를 세상에 선보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잡아끈 패션 브랜드 1017 ALYX 9SM의 파운더 매튜 윌리엄스. 그의 천재적인 디자인 감각과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매종, 오테마 피계의 미적 코드가 만나 다섯 가지의 새로운 워치 피스를 출시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세계 제조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 탐구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라는 매튜 윌리엄스의 말처럼 창조적 협업은 서로에게 엄청난 시너지를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두 브랜드는 숙련된 기술을 공유하면서 더욱 다채로운 시선으로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갔다. 새로운 컬렉션은 도회적인 무드의 패션 하우스와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두 세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매튜 윌리엄스는 시계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 37mm부터 42mm까지 다양한 크기의 모델을 단순하고 간결한 맛을 더해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모든 손목에 어울리도록 고안한 절제된 디자인이 컬렉션의 관전 포인트다. 총 다섯 가지 중 두 가지 로열 오크 모델은 워치 전체에 18K 옐로 골드를 적용해 일명 '통골드'가 주는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케이스 직경 37mm 모델은 가는 손목에도 잘 어울려 유니섹스 아이템으로 제작되며, 다이얼 안에 더한 골드 아플리케 장식 'Audemars Piguet'와 전사 처리한 '1017 ALYX 9SM' 브랜드명이 간결한 맛을 전한다. 케이스 직경 42mm 모델은 간결함을 추구하는 이번 컬렉션의 주제에 맞춰 다이얼

를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두 브랜드는 숙련된 기술을 공유하면서 더욱 다채로운 시선으로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갔다. 새로운 컬렉션은 도회적인 무드의 패션 하우스와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두 세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매튜 윌리엄스는 시계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 37mm부터 42mm까지 다양한 크기의 모델을 단순하고 간결한 맛을 더해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모든 손목에 어울리도록 고안한 절제된 디자인이 컬렉션의 관전 포인트다. 총 다섯 가지 중 두 가지 로열 오크 모델은 워치 전체에 18K 옐로 골드를 적용해 일명 '통골드'가 주는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케이스 직경 37mm 모델은 가는 손목에도 잘 어울려 유니섹스 아이템으로 제작되며, 다이얼 안에 더한 골드 아플리케 장식 'Audemars Piguet'와 전사 처리한 '1017 ALYX 9SM' 브랜드명이 간결한 맛을 전한다. 케이스 직경 42mm 모델은 간결함을 추구하는 이번 컬렉션의 주제에 맞춰 다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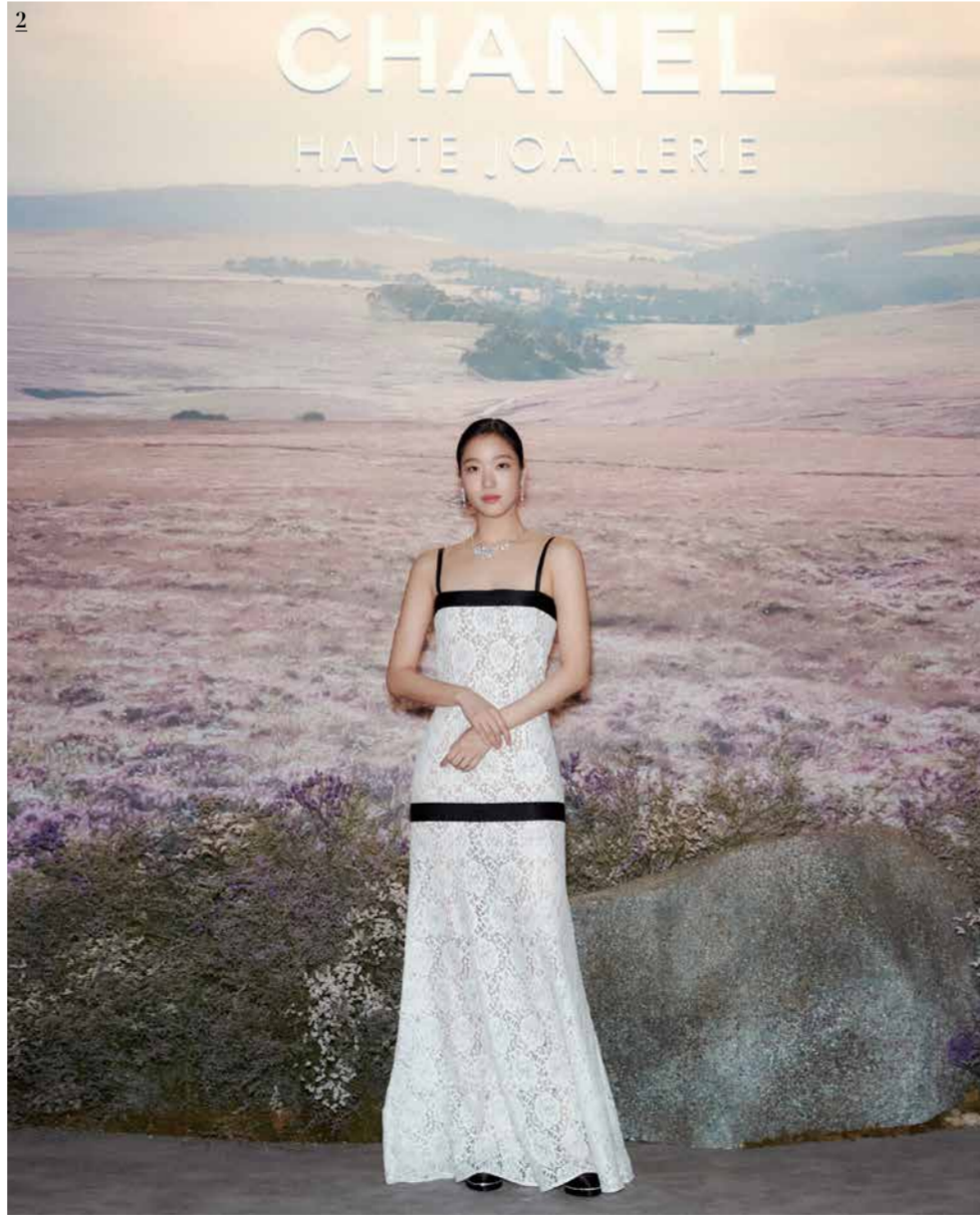
1 간결한 디자인의 18K 옐로 골드 로열 오크 셀프 와인딩. 2 6-9-12시 방향에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핸즈와 날짜 표시를 전하는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3 패션 브랜드 1017 ALYX 9SM의 파운더이자 디자이너 매튜 윌리엄스.

의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를 과감하게 없애고 369시 자리에 회전하는 핸즈만 남긴 것이 특징이다. 두 가지 로열 오크 모델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다른 두 가지 로열 오크 오프쇼어 모델도 동일한 모티브로 다이얼 안에 최소한의 인디케이터만 장착해 깔끔한 무드를 전한다. 로열 오크 오프쇼어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날짜 인디케이터는 3시 방향에 그대로 위치하고, 6시 방향에서는 '1017 ALYX 9SM'이 눈길을 끈다. 이 모델은 18K 화이트 골드 혹은 옐로 골드로 출시한다. 앞서 언급한 오테마 피계 부티크에서 판매할 4개의 모델 외에 로열 오크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유니크 피스가 이번 컬렉션의 정수를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K 옐로 골드와 스테인리스 스틸을 조합한 41mm 케이스를 장착했으며, 이러한 소재의 결합은 수직 새틴 마감 처리한 블랙 PVD 코팅 골드 다이얼과 대비를 이뤄 돋보이는 맛을 배가한다. 이 유니크 피스는 도쿄에서 열리는 오테마 피계와 1017 ALYX 9SM의 협업 출시 파티에서 경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모금액은 소외 계층 어린이의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특히 아이들의 활동과 놀 권리 보장에 힘쓰는 NGO 단체 키즈 인 모션(Kids in Motion)과 라이트 투 플레이(Right to Play)를 통해 소외 계층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에 기부될 예정이다. 문의 02-533-1351 에디터 윤지경

Dream of Tweed

형형색색의 실로 직조한 트위드가 만들어내는 신세계. 지난 7월, 서울에서 샤넬의 하이 주얼리 이벤트, 트위드 드 샤넬(Tweed de Chanel)이 펼쳐졌다.

영감이 떠오르는 곳을 늘 풍경이 자리한다. 자연의 샘이 흐르는 소리로 가득하고 밤에는 별이 가득한 벨벳 같은 칠후으로 뒤덮이는 스코틀랜드의 언덕과 계곡의 풍경은 가브리엘 샤넬에게 완벽한 영감의 세상이었다. 1920년, 그녀는 웨스트민스터 공작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영국 귀족의 삶을 접했다. 공작이 즐겨 입던 트위드를 샤넬의 스타일과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로 재해석해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한 여성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하는 피스로 탄생시켰다. 샤넬은 이러한 역사를 돌아보며 2020년 트위드에 헌정하는 45개 아름다운 작품으로 구성된 첫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인다. 트위드 직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채로움에서 영감을 받아 분절을 능숙하게 활용해 트위드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재현했다. 이로써 샤넬 화인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패트리스 레게로는 샤넬 하이 주얼리의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23년 패트리스 레게로는 트위드의 마법에 이끌려 64개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로 두 번째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내 꿈은 보석으로 트위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라는 그의 말처럼 정교한 세공과 자수, 오픈워크 레이스, 프린트 등 풍부한 디테일로 재현하고, 페브리 직조의 황홀한 움직임을 주얼리로 구현해 트위드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준다. 화이트 리본과 핑크 까멜리아, 푸른 밤하늘의 별, 노란색 태양, 붉은 광채를 내뿜는 사자 등 가브리엘이 사랑했던 다섯 가지 컬러와 다섯 가지 아이콘으로 컬렉션을 구성했다. 이번 컬렉션은 6월 영국 런던에서 처음 공개했고, 지난 7월 트위드 드 샤넬 하이 주얼리 피스가 서울에 도착했다. 이벤트 장소는 트위드라는 이름을 따온 스코티시 보더스의 리버 트위드(River Tweed)를 그대로 재현해 샤넬의 하이 주얼리가 지난 히스토리와 헤리티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트위드 드 샤넬 이벤트를 위해 엠베서더 김고은, 박서준을 비롯해 한효주, 장윤주, 김유정, 한예리 등 많은 셀러브리티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트위드 드 샤넬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서울 이벤트 이후 아시아 여러 나라를 순회할 예정이다.



1 트위드라는 이름을 따온 스코티시 보더스의 리버 트위드(River Tweed)를 재현한 이벤트 장소. 2,3 트위드 루반 네크리스와 아이콘을 적용한 샤넬 엠베서더 김고은. 4 하이 주얼리를 전시한 홀. 5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세팅한 트위드 베를리 아이킹. 6,7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트위드 루반 브레이슬릿과 네크리스. 8 이벤트에 참여한 샤넬 엠베서더 박서준.





1



3

13, 1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 옐로 다이아몬드와 록 크리스탈의 화려한 조화가 돋보이는 18K 옐로 골드와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트위드 강릉 네크리스. 2, 3 이펙트에 참여한 배우 한애리와 한효주, 4 라번 트위드를 재현한 이펙트 홀에 전시한 하이 주얼리 피스, 5-7 사벨 하우스의 상징과도 같은 트위드를 소재로 한 그림들, 8-10 여러 줄의 다이아몬드를 교차하고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스톤을 세팅해 트위드의 직조를 느낄 수 있는 트위드 마드모아젤 이어링, 브라이슬릿, 네크리스.



4



2



5



6



7

이번 컬렉션은 리본, 까멜리아, 별, 태양, 사자라는 5개의 챕터를 통해 트위드의 매력을 재현하는 동시에 각각의 상징을 잠금장치 안에 섬세하게 혹은 주얼리 위에 강렬하게 표현했다. 우선 트위드 루반(Tweed Ruban)은 샤넬의 초창기부터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 여망이나 장식적으로 사용하던 리본을 중심으로 탄생했다. 트위드 그래픽을 연상시키는 패턴의 디자인으로 섬세함과 절제미를 선사한다. 정아함을 부여하는 화이트 골드에 세팅한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영롱하게 빛나며 오픈워크 레이스 장식을 통해 유려한 실루엣을 자아낸다. 그리고 샤넬의 시그니처 코드이자 빼놓을 수 없는 까멜리아에 영감을 받은 트위드 까멜리아(Tweed Camélia)는 질감을 살린 직조를 배경으로 파우더 핑크와 푸르시아 사파이어를 세팅한 로즈 골드 자수를 넣어 까멜리아 꽃의 기하학적인 완벽함을 표현하고, 투명함과 대비를 활용해 독보적인 우아함을 지닌 피스를 완성했다. 이어 별을 모티브로 제작한 트위드 에투알(Tweed Étoile)은 가브리엘 샤넬이 탄생시킨 처음이자 유일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인 비주 드 다이아망(Bijoux de Diamants)에서 처음 등장한 형성 모티브를 적용했다. 강렬한 색채의 보석을 밀도 높게 사용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의 깊이를 재해석했다. 작은 별이 무수히 수놓인 밤하늘처럼 블랙과 블루의 직조에 옐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 장식해 모던함이 돋보이는 동시에 트위드강의 칠혹 같은 밤하늘을 연상시킨다. 더불어 트위드 솔레일(Tweed Soleil)은 강릉가의 아파트에서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가브리엘 샤넬의 세계에 자주 등장하는 태양에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옐로 골드에 세팅한 투명하고 볼륨감이 돋보이는 보석은 비잔틴과 베네치아의 웅장함을 눈부시게 재현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별자리인 사자자리에서 영감을 받은 트위드 라용(Tweed Lion)은 레드, 오렌지, 서니 옐로 컬러 스톤을 활용해 사자의 맹렬한 힘을 표현하고 표호하는 패턴 장식을 더해 감각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면모를 자아낸다.

문의 080-805-9628, chanel.com 에디터 윤지영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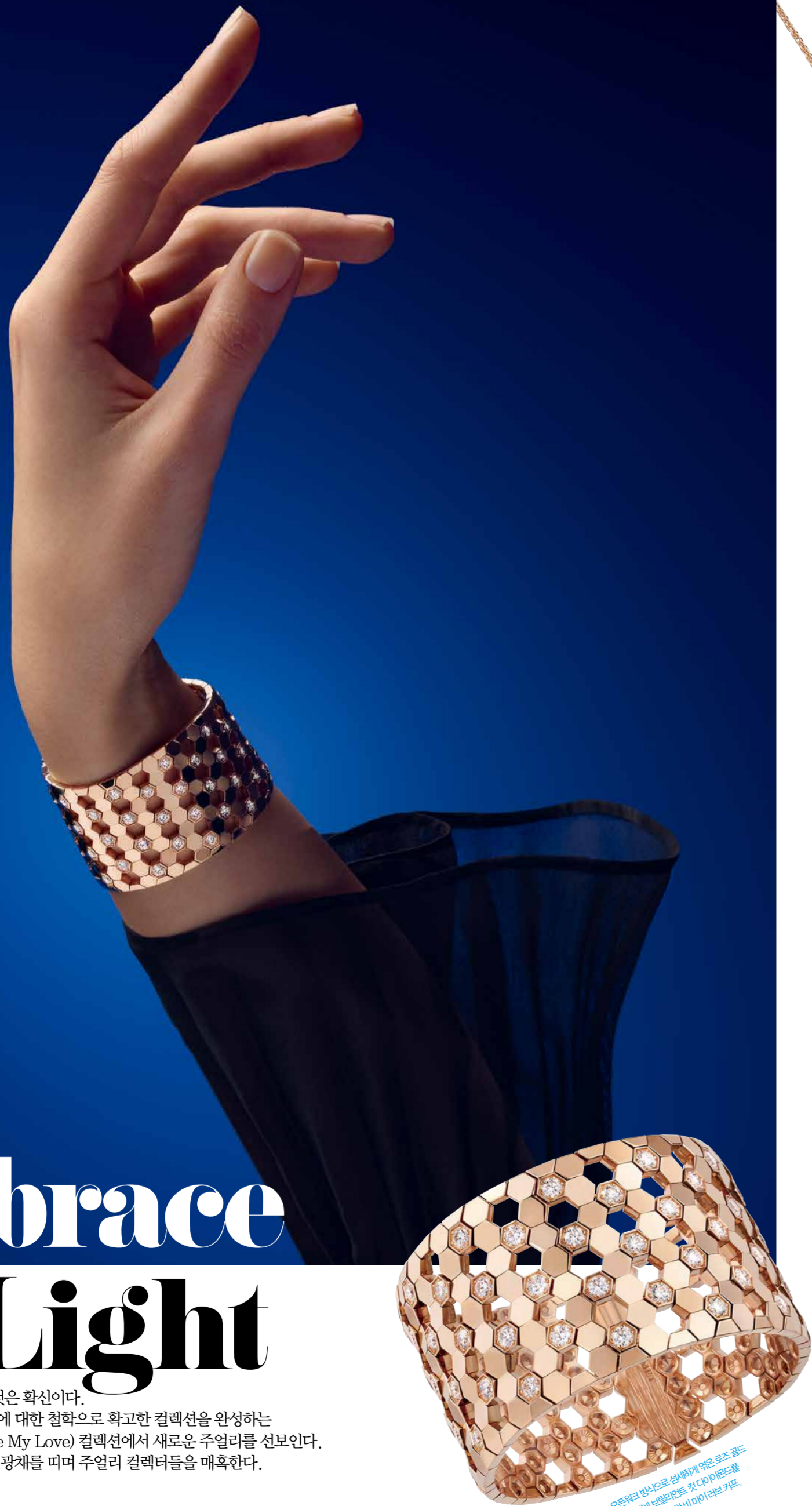
9

10

Embrace the Light

사랑이 결실을 맺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다. 아이코닉한 심벌과 빛을 품은 주얼리에 대한 철학으로 확고한 컬렉션을 완성하는 주얼리 메종 쇼메의 비마이 러브(Bee My Love) 컬렉션에서 새로운 주얼리를 선보인다. 장인 정신을 담아 섬세하고도 대담한 광채를 띠며 주얼리 컬렉터들을 매혹한다.

오픈워크 방식으로 상하에 얽은 로즈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비마이 러브 카프.



창립 초부터 자연주의 주얼리 메종으로 이름을 알린 쇼메는 2백40년 이상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선보이며 다양한 심벌을 작품에 반영해왔다. 그중 비마이 러브(Bee My Love) 컬렉션의 대표적인 심벌인 벌은 나폴레옹이 황실의 상징으로 선택한 동물로 프랑스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쇼메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쇼메의 유니크하면서도 아이코닉한 허니콤 디자인이 완성되었고, 이를 적극 활용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더해 컬렉션을 더욱 확장하며 명맥을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로 출시한 비마이 러브 컬렉션에서는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결합해 눈부신 빛을 강조하고 주얼리 장인다운 정교한 디테일과 유연함으로 풍성한 볼륨감에도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주얼리를 완성해 새로운 스토리를 들려준다. 주얼리에 대담한 광채를 더하는 것은 쇼메의 금세공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미려 폴리싱 처리한 골드는 빛을 더욱 아름답게 반사하며, 오픈워크 스타일로 정교히 세공한 허니콤 디자인은 주얼리가 더욱 극명한 광채를 뽐내도록 한다. 특히 비마이 러브에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로즈 골드 컵는 컬렉션의 노하우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완성한 작품이다. 메종의 노하우와 장인 기술이 만나 탄생한 수백 개의 요소가 주얼리에 의해 하나하나 조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교한 디자인과 탁월한 유연성을 지닌 특별한 피스로 선보일 수 있었다. 더불어 비마이 러브 로즈 골드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에서는 좀 더 출중하게 허니콤 모티프를 연결하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배치해 대담한 볼륨감을 완성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된 허니콤들은 마치 하나의 몸이 된 듯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점이 놀라움을 자아낸다. 몸의 곡선을 따라 유려하고 관능적인 라인을 그려내 놀라운 착용감을 선사하며, 이는 모두 쇼메의 금세공 기술과 장인의 기교 덕분이다. 그중 비마이 러브의 벌을 모티브로 한 골드 비즈에 쇼메만의 다이아몬드 커팅 기법인 임페라트리스 컷으로 완성한 다이아몬드를 매치해 더욱 돋보이는 비마이 러브 옐로 골드 링도 눈여겨볼 만하다. 임페라트리스 컷은 쇼메 메종의 뛰어난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고유의 커팅 기술로 88면의 육각형으로 완성하는 고난도의 컷을 의미한다. 기존 브릴리언트 컷보다 훨씬 강렬하며 찬란한 광채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쇼메의 비마이 러브 컬렉션이 매력적인 것은 다양한 믹스 매치로 여러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 옐로 골드 등 다양한 소재는 물론 각 소재마다 솔리드, 허프 파베, 풀 파베 다이아몬드를 매치해 여러 피스를 선보이는 것. 이로써 각자의 취향이나 개성에 따라 여러 순서 및 조합으로 스타일링해 캐주얼하게, 때론 화려하게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개성에 따라 믹스 매치가 가능하다는 점은 쇼메 비마이 러브 컬렉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비마이 러브 컬렉션 피스들은 9월 8일부터 진행되는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팝업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비마이 러브 컬렉션의 허니콤 모티프의 눈부신 광채와 다양한 레이어링을 통한 스타일링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2-3442-3359 에디터 **상정민**



1 로즈 골드 소재의 허니콤 모티프로 이루어진 링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유연함을 더하고 워터컷 움직임까지 조절이 가능한 비마이 러브 로즈 골드 타이네크리스. 2 쇼메의 아이코닉한 비마이 러브 링 컬렉션. 3 각 0.3 및 0.23캐럿의 임페라트리스 컷 다이아몬드 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벌 모티프의 비마이 러브 옐로 골드 링. 4 쇼메의 아이코닉한 비마이 러브 컬렉션 주얼리.



쇼메 비마이 러브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팝업 스토어



1780년부터 2백4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파리자형 주얼리 쇼메의 아이코닉한 비마이 러브(Bee My Love) 컬렉션을 재조명하는 쇼메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 허니콤 모티프를 재해석해 탄생시킨 비마이 러브 컬렉션은 황실을 상징하는 꿀벌에 현대적인 감성을 담아 선보인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허니콤 디자인으로 구조적 미학을 담은 비마이 러브 컬렉션의 제품은 모두 이 팝업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우측 QR코드 스캔을 통해 방문 예약 가능하다.



기간 9월 8일(금)~24일(일), 17일간 **장소**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5층 더스테이지

(위부터 차례대로) 부드러운 곡선이 매력적인 스캐어 형태의 18K 로즈 골드 펜던트에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쿠션 형태 마디오브릴 스톤을 배치하고 주위에 36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시팅한 이슬라 컬렉션 네크리스, 독특한 쿠션 형태의 페리도트 스톤을 솔리테어 스타일로 배치하고 20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그 주변을 감싸 유쾌하면서도 우아한 감성을 전하는 이슬라 컬렉션 링, 18K 로즈 골드 밴드에 클레시드라 컷 마디오브릴을 솔리테어 스타일로 배치하고 그 주변을 20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이슬라 컬렉션 브레이슬릿, 18K 로즈 골드에 혁신적인 클레시드라 컷으로 완성한 페리도트 정스톤을 배치하고 배열에 20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시팅해 여성스러운 매력을 배가하는 이슬라 컬렉션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Elegant Innovation

밀라노의 창의적 정신을 이어받은 장인의 기술과 전문 세공력으로 탄생시킨 컨템퍼러리 파인 주얼리 브랜드 포멜라토에서 또 한번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이슬라(SCOLA)'를 선보인다.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에 개성을 더하는 유쾌한 컬러 스톤의 만남이 포멜라토만의 절제된 밀라노식 여성미를 선보인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부드러운 곡선을 더한 스캐어 프레임 안에 쿠션 형태의 클레시드라 컷 페리도트 정스톤을 배치해 유쾌한 무드를 발산하는 이슬라 컬렉션 네크리스, 곡면으로 이어지는 18K 로즈 골드의 깔끔한 라인에 아름다운 쿠션형 이프리미엄으로 컬러 포인트를 더한 이슬라 컬렉션 네크리스, 18K 로즈 골드 소재의 확장된 베젤로 비대칭이 주는 매력적인 시각 효과를 부여하고 정스톤이 그네에 매달린 듯한 모습을 연출해 푸른 이프리미엄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22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장식을 곁들인 이슬라 컬렉션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3143-9486 에디터 **성정민**

2023 F/W Trend Report for women & men

New Working Women, BOTTEGA VENETA

흑인 인어공주가 등장하는 시대. 인종, 나이, 성별 등 모든 것을 초월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흐름이 패션계에도 가득한 한 해였다. 밀라노, 파리, 뉴욕 등 할 것 없이 빅 브랜드들의 한국 셀럽 초청 열풍으로 동양인 셀럽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며, 남성복 쇼에서 유난히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스커트나 탱크 톱이 눈에 띄었다. 또 여전히 복고적인 무드의 Y2K 트렌드가 지속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본으로 돌아가기(back to basic)라는 '올드머니 룩(old money look)'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영 & 올드(Young & Old)를 넘나드는 지금 이 순간, 2023 F/W 트렌드 하이라이트.

Trend 1. New Working Woman

이번 컬렉션 쇼에서 많이 보인 룩은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오피스 룩이다. 하지만 지난 팬데믹에서 트렌드로 떠오른 '원마일웨어 룩(one-mile-wear look)'과는 사뭇 다른 경향을 보인다. 더 격식 있고 포멀한 느낌의 재킷, 베이식한 트렌치코트와 팬츠 등 어디든 입고 다닐 수 있지만 클래식한 아이템에 주목했다. 다시 테일러링에 집중하는 듯한 경향도 엿볼 수 있었는데, 보테가 베네타부터 폴 스미스, 쉘린느, 르메르 등까지 옷의 실루엣과 선에 초점을 맞춘 듯했다. 소재에 대해서도 나만 아는 럭셔리에 집중해 캐시미어나 레더 등 고급 소재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 일상에서도 럭셔리를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올드머니 룩 패션의 일환인 듯하다.

Trend 2. Like a Balloon

이번 컬렉션에서 유독 두드러진 실루엣 중 하나는 풍선처럼 부푼 형태다. 바람을 뿜뿜하게 넣은 듯한 패딩은 물론 프라다에서는 패딩이 아닌 소재를 풍선처럼 부풀려 연출하기도 했다. 울거울에는 누가 더 짧은지 경쟁이라도 하는 듯했던 작년의 숏 패딩 열풍 대신 누가 더 뽕뽕한지 경쟁하게 될 듯. 디스퀘어2에서는 근육질 몸매처럼 팔 부분을 뽕뽕하게 연출했으며, 리오웬스에서는 풍선을 몸에 두른 듯 독특한 실루엣을 선보였다. 사카이와 베르사체에서는 너무 뽕뽕해서 어깨선조차 사라진 듯한 패딩을, 루이 비통에서는 패딩이 아닌 다른 소재로 이루어진 풍선 같은 아우터로 근육맨을 완성했다. 언뜻 우주복 같기도 한 이런 볼륨감은 어쩌면 곧 현실이 될 우주여행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은 덩.

Trend 3. Gender Fluid

패션에서 성별을 구분하는 현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나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의류 카테고리나 나눠지는 것은 사실. 하지만 알렉산더 맥퀸부터 지방시, 에트로, 미우미우까지, 지난해 말 톰 브라운 쇼에 등장했던 치마를 입은 남성들이 다시 대거 등장했음은 물론 숏 팬츠와 튜브 톱 등 여성복에 대한 탐미가 더욱 다채로워졌다. 민트나 연보라, 연핑크 등 여성스러운 느낌의 컬러도 다수 등장했다. 이제 정말 패션에서 남녀 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질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Trend 4. Hourglass Silhouette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룩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클래식하고 우아한 실루엣이 트렌드로 떠오르는 중. 그에 따라 잘록한 허리를 강조한 이워글라스 실루엣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다. 1950년대 다음의 뉴 룩으로 대표되는 우아한 이워글라스 실루엣은 2023년으로 들어서면서 한층 더 세련된 무드로 변모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다. 디올에서는 허리선을 강조하고 짧은 재킷에 풍성한 A라인 스커트를 매치한 스타일링으로 특유의 여성스러운 무드를 가미한 실루엣을 선보였다. 질 샌더에서는 미니 말한 레더 톱으로 잘록한 허리가 드러나도록 해서 개성 있는 이워글라스 실루엣을 표현했다. 알렉산더 맥퀸이나 발렌티노의 경우 파워풀한 숄더 재킷으로 상대적으로 들어간 허리 라인이 돋보이게 연출해 여성의 굴곡진 몸을 보여줄과 동시에 여성의 파워를 강조하기도 했다.



Like a Balloon, PRADA

Like a Balloon, RICK OWENS

No Dress, Yes Coat, MAX MARA

Temptation of Lingerie, GUCCI

Hourglass Silhouette, TODS

Flowers in Bloom, CHANEL

Trend 5. No Dress, Yes Coat

다시 옷장에서 발목까지 오는 혹은 바닥을 쓸 듯한 롱 코트를 꺼내 입어야 할 듯하다. 2023 F/W 컬렉션 런웨이에서는 롱 코트가 빛을 받았다. 남녀 컬렉션 할 것 없이 긴 빅 코트를 선보였는데, 어깨는 반드시 각이 지고 커야 한다. 막스마라부터 생 로랑, 지방시, 스틸라 맥카트니, 루이 비통, 토즈, 질 샌더, 보테가 베네타 등 올뿐 아니라 레더, 캐시미어까지 각자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드레시한 코트를 보는 재미가 있는 2023 F/W 컬렉션이었다.

Trend 6. Check Point

이번 런웨이에서는 유독 체크 패턴의 의상이 눈에 띄었다. 현대적인 느낌의 체크라기보다는 좀 더 빈티지한 무드의 체크라는 것이 특징이다. 잔잔한 체크부터 큰 체크뿐 아니라 다양한 색조와 비전을 응용한 새로운 방식의 체크까지, 더 다양하고 풍성해졌다. 특히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떠났지만, 그녀의 상징과도 같은 타탄체크가 디올, 에트로, 버버리와 생 로랑까지, 다양한 쇼의 런웨이를 메우며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저마다의 개성을 담아 다채로운 룩으로 선보여 눈을 즐겁게 했다. 어떤 실루엣에 녹이는지에 따라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스트리트 무드와도 잘 어울리는 체크아말로 패션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아닌지.

Trend 7. Red All Over

지난해 발렌티노 핑크가 트렌드의 중심에 있었다면 올 하반기에는 모든 컬렉션에서 올 레드 의상을 하나둘씩 선보였다. 발렌티노 역시 레드 카드를 꺼내 들었음은 물론이다. 브랜드 대표 컬러가 레드인 페라카모를 포함해 에르메스, 프라다까지 전부 레드 파도에 몸을 실었다. 같은 빨간색이더라도 농도와 채도에 따라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돋보이는 레드는 단연 선명하고 채도 높은 스퀘렛 레드다. 우아한 드레스부터 포멀한 재킷과 스커트 셋업, 코트, 니트까지 다양한 레드 컬러의 의상을 보는 것도 이번 컬렉션의 관전 포인트.

Trend 8. Temptation of Lingerie

이제 속옷에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시스루' 트렌드와 바지 위에 속옷 하의의 선이 드러나도록 스타일링하는 트렌드에 이어, 이에 속옷까지 특별한 디자인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것. 구찌나 보테가 베네타 쇼에서는 니플 부위만 아슬아슬하게 가린 마이크로 브라가 등장했다. 돌체앤가버나와 디스퀘어2는 시스루로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브리프에 포인트를 주어 강조했다. 이제 속옷까지 패셔니블한 것으로 선택하는 게 진정한 패셔니스타의 에티켓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지, 혹은 좀 더 과감하고 당당해진 요즘 세대의 패션을 반영하는 듯도 하다.

Trend 9. Flowers in Bloom

올해는 많은 디자이너가 꽃과 사랑에 빠진 듯하다. 특히 눈에 띄는 모티브가 바로 꽃이었기 때문. 대신 이진처럼 프린트를 활용한 플라워 패턴이 아닌 한담 한담 꽃 모양으로 완성한 코르시주를 옷에 부착한 것이 특징이다. 프라다에서 대거 등장한 플라워 코르시주 스커트부터 샤넬 쇼에서 선보인 샤넬의 상징과도 같은 까말리아를 코르시주로 만들어 진폭 붙인 의상까지. 에트로와 질 샌더에서도 각자만의 스타일의 꽃을 코르시주로 제작해 의상 전체에 붙여 장식했다. 올 가을, 겨울은 이런 코르시주 덕에 그리 춥지만은 않을 듯하다.

Trend 10. No Pants, No Problem

캔달 제너가 작년 말부터 스트리트에서 선보인 노 팬츠 패션. 그 당시만 해도 '저렇게 입고 다닐 수 있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이 무색하게도 2023 F/W 컬렉션 런웨이에는 팬츠를 생략한 모델이 대거 등장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미우미우. 팬츠를 과감히 생략한 대신 타이즈와 속옷은 더욱 화려해졌다. 컬러풀한 타이즈를 보는 것 또한 훌륭한 재미. 로에베는 남녀 가릴 것 없이 팬츠를 생략했으며, 지방시는 빅 사이즈 재킷을 팬츠 없이 연출했다. 과거 하의 실종 패션과 비슷한 느낌이면서도 미우미우나 비비안 웨스트우드에서처럼 팬츠 대신 브리프를 밖으로 드러낸다는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하다. 이 역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트렌드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에디터 **성명민**



Red All Over, HERMES

Check Point, DIOR

No Pants, No Problem, MIU MIU

(위) 차분하고 우아한 컬러감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아이코닉한 T 메탈 로고로 포인트를 준 송이자기족 소재의 T 티알라스 사각 백 가격 미정 **토즈**, 문의 02-3438-6008 (아래) 뚜렷한 라인과 드라피드한 곡선 등 뉴욕의 대표적 건축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모던하고 세련된 실루엣을 자랑하는 카프 스킨 소재의 RL 888 톱 핸들 백 3백만원대 **릴프 로빈 컬렉션**, 문의 02-3467-6560



뒷면에서부터 감싸 안는 듯한 가방 구조가 앞면의 필라동 톤 간지나 버클까지 이어져 매력적인 세이프를 자랑하는 송이자기족 소재의 하그 백 가격 미정 **파라다오**, 문의 02-3430-7854



LOEWE

부드러운 최상급 나파 렘 스킨을 활용에 유려한 세이프를 연출하고, 백 오프닝 부분의 주름 디테일로 완성도를 높여 한층 장제된 우아함을 더했다. 마치 도넛 모양처럼 연결된 체인은 하우스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돋보이게 하는 한편, 스테인리스 스틸과 알루미늄 합금 소재에 골드 도금으로 제작해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스쿼츠 백 미디움 6백20만원 **로에베**, 문의 02-3479-1785



Bag Crush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실루엣, 과감한 컬러 초이스, 그리고 섬세한 디테일까지. 2023 F/W 잇 백 컬렉션.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오로지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악스클루시브 아이 펠트로, 평한 컬러감과 볼륨감 있는 디자인이 특징인 램 스킨 소재의 고-원프 MM 가격 미정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위) 세계를 여행하는 배의 돛 실루엣에서 영감을 받아 유연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이 유니크한 맛을 선사하며, V 자 모양 클로저와 체인 끝에 달린 펜던트가 특징인 미니 벨라 백 2백만원대 **에트로**, 문의 02-3446-1969 (아래) 여성스러운 큐브 라인이 우아함을 배가하며, 빈티지 골드 컬러의 메탈 골드 장식과 푸크시아 컬러가 매력적인 조화를 이루는 카프 스킨 소재의 스몰 커먼 백 2백만원대 **렌디**, 문의 02-544-1925



이탈리아의 디자인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옐로 컬러의 사이언 소재로 영한 감각을 부여하고 홀스빗 디테일 장식으로 유니크함을 극대화했다. 추가 솔더 스트랩을 제공해 활용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미디엄 체인 숄더백 가격 미정 구찌, 문의 02-3452-1521. 핑크 컬러의 뱀비 소재로 캐주얼하고 소녀 같은 면드를 선사하며, 크로스 보디 혹은 숄더백으로 착용 가능해 실용적이다. 스몰 호보 백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30-805-9628. 허우스의 시그니처 백이 감각적인 컬러감을 입혀 더욱 세련된 맛이 돋보인다. 심플하면서도 장식적인 실루엣이 클래식한 무드를 선사하며, 내부에는 평평한 3개의 수납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갤러리아 백 가격 미정 프루다, 문의 02-3442-1830

(위) 크리스찬 디올 퍼플 보틀의 상에서 영감을 받은 라운드 플립 디자인이 간결하고 도회적인 멋을 부여하며, 엔틱 골드 파나시 메탈 CD 트위스트 잠금장치로 마무리했다. 30 문체뉴 에바뉴 스몰 백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280-0104 (0번) 원형상의 클래식한 디자인이 아디에나 애착하기 좋고, 치분하고 고급스러운 컬러가 돋보이는 송이꽃 가죽 소재의 엑스트라 케이스 3백39만원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패드 램 스킨 소재로 섬세하게 수작업해 완성한 백. 실버 마감의 캣아웃 메탈 실 로고 잠금장치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길이 조절 가능한 체인을 활용해 숄더백 혹은 크로스 백으로 연출할 수 있다. 쉘 박스 백 4백1만원 일렉산디 맥퀸, 문의 02-6105-2226



(위) 세련된 프레스트 에메랄드 그린 컬러가 개성을 부여하며, 그린 말라카이토 소재의 비늘과 레드 에-멜로 표현한 뱀 눈, 골드 도금한 황동 소재의 뱀 머리 장식 잠금장치가 포인트인 세르펜티 엘라스 크로스 백 2백90만원 불가리, 문의 02-6105-2120 (아래) 가벼운 패딩 소재가 볼륨감을 더하며, 전편의 메탈 라우팅 로고가 허우스의민 아이코닉한 매력을 선사한다. 아르카디 백 가격 미정 마우이우, 문의 02-541-7443



(위) 브라운 스웨이드 카트 스킨과 프린지 디테일이 만나 자유분방하고 고급스러운 무드가 공존한다. 미디엄 에-멜로 백 가격 미정 셀윈드 바이 에디슬리엔, 문의 1577-8841 (아래) 가벼운 재킷과 팬츠에서 영감받은오며, 프린지 장식이 특징인 스위트 카트 스킨 소재의 캘리당스 아트 백 1천8백39만원 에트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윤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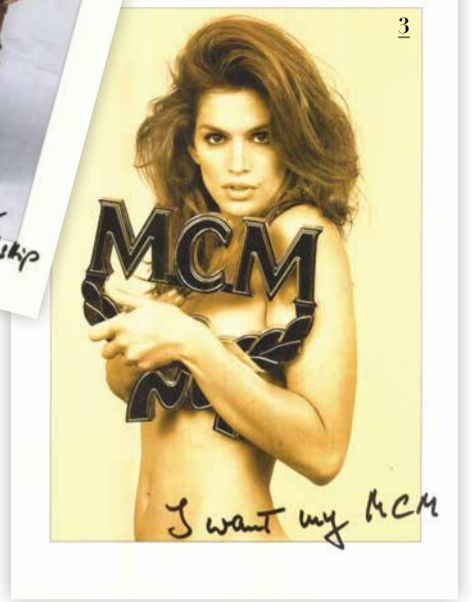


New Classic

셀린노의 2023 겨울 컬렉션에서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트리옴프 시그니처를 포함한 백을 새롭게 선보인다. 그 주인공은 아바 트리옴프 백. 반달 모양 실루엣으로 클래식하고 웨어러블한 스타일로 완성했으며, 섬세한 처리와 라운드형 프로필을 위한 파이핑 작업, 특별한 방식으로 코팅하거나 가볍게 에이징 처리해 독특한 느낌을 부여하는 하드웨어 등 셀린노 고유의 코드와 장인 정신을 그대로 구현했다.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올 가을과 겨울 새로운 뉴 클래식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하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블랙 컬러 가죽에 트리옴프 로고의 자석형 잠금장치로 심플하지만 포인트를 부여하는 셀린노의 새로운 아바 트리옴프 백, 트리옴프 로고 패턴 가죽으로 아이코닉한 감성을 부여하며, 가죽 플랩과 프레임 2가지를 사용해 심플하게 고정된 스트랩으로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하는 아바 트리옴프 백 모두 가격 미정
셀린노 바이 에디터인, 문의 1577-8841 에디터 **성정민**



1 신디 크로포드의 함께한 2023 A/W 캠페인 비주얼, 2 과거 신디 크로포드가 참여한 MCM 글로벌 캠페인 비주얼, 아이코닉한 MCM의 라지 시그니처에 얹어 있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3 누드로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과거 신디 크로포드의 MCM 캠페인 비주얼.

유르겐 텔러는 MCM의 시대정신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시, 시대, 성별을 뛰어넘는 정신을 포착해내며 브랜드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연결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 신디 크로포드 뒤에 MCM 특유의 로고와 함께 아이코닉한 코냐 컬러를 입은 백팩, 쇼퍼 백, 솔더백, 보스턴백, 크로스 보디 백, 토트백 등 시그니처 백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는 스타일의 정수인 모노그램과 비주얼 시그니처인 코냐 비세토스를 구성하는 월계수, 다이아몬드 디자인 등 MCM만의 아이코닉한 코드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당당한 포즈를 취한 신디 크로포드는 MCM의 새로운 백인 모드 트리비아 크로스 보디 백을 착용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번 프로젝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비앙 배런은 "놀라운 역량을 지닌 두 사람과 협업하며 새로운 대담함이라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라고 전하며 "새롭고 영향력 있으며, 당당하고 고급스러운 Z 세대를 위한 매력적인 아이템을 알리는 동시에 MCM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미지임을 확신한다"라고 자신했다.

새로운 캠페인은 지난 6월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첫선을 보인 브랜드의 새로운 지향점을 전하는 다리과 같은 뜻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신디 크로포드라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전설적인 모델을 통해 브랜드를 정의하는 클래식한 헤리티지 코드를 기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와 동시에 고객에게 MCM의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금 전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브랜드의 현주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앞으로 MCM은 새로워진 라이프스타일 레디투웨어와 함께 새롭게 해석한 가죽 제품과 액세서리로 구성된 2024 S/S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1600-1976 에디터 **성정민**

MCM은 '모던 크리에이션 뮌헨(Modern Creation München)'의 약자로 1976년 독일 뮌헨에서 창립된 글로벌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패션 하우스다. 독일의 헤리티지와 문화적 시대정신을 계승하는 가운데 음악, 예술, 여행, 기술과 유대를 통해 대담하고 반항적인 태도와 자유에 대한 열망을 지향한다. 이를 제품에 녹이기 위해 MCM은 기능적 혁신과 최신 기술 및 소재를 활용해 클래식한 디자인을 대담하게 변화시키는 방식에 집중했다. 현재도 성별과 나이의 제약에서 자유로우며 규제와 경계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트렌드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2023 A/W 시즌에는 과거의 헤리티지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았다. 예전부터 MCM을 사랑하는 대표 셀러브리티 중 하나였던 전설적인 슈퍼모델 신디 크로포드(Cindy Crawford)와 다시 조우하는 것으로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

녀는 모델로 명성을 떨칠 때 MCM을 착용한 모습이 여러 곳에서 노출되면서 MCM의 홍보 및 광고 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으며, 당대 최고의 브랜드와 모델의 만남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녀의 예술적인 몸매가 드러난 화보와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MCM이 그녀와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콘텐츠 제작에 패션 포토그래퍼 거장 유르겐 텔러(Juergen Teller)가 참여한다는 사실 또한 화제를 모았다. 거장의 렌즈로 담아낸 MCM과 신디 크로포드의 상징적 코드와 시그니처 스타일이 기대되는 이유다. 또 이번 캠페인에서는 배런 & 배런(Baron & Baron)의 전설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비앙 배런(Fabien Baron)과 협업했다. 그는 작고한 유명 사진작가 허브 리츠(Herb Ritts)가 촬영한 작품이나 신디 크로포드가 등장한 MCM의 1996년 캠페인 속 레퍼런스를 섬세하게 활용했다. 여기에

from Heritage to the Future

혁신적이면서도 아티스틱한 감성을 놓치지 않는 브랜드 MCM이 2023 A/W 시즌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을 선보인다. 과거의 헤리티지를 이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이번 캠페인을 보면 확신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더 놀라운 변화들.

베이비 캐시미어 소재의 내추럴 캐럴 코트
가격 미정, 베이비 캐시미어 소재의 내추럴
캐럴 자켓 9백37만원, 베이비
캐시미어 소재의 핑크 톤 멜란지 캐럴 피크스빌
폴오버 3백85만원, 실크 소재의 내추럴 라이트
캐럴 자켓 2백35만원, 카프 스킨
소재의 브라운 컬러 레베카 발레리니 슈즈
1백16만원 모두 로로피아나.

디어 스킨 소재의 그리 에토프
캐럴 재킷과 쇼츠, 스웨이드
고트 스킨 소재의 사이하이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Autumn Story

기대와 반가움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시즌. 2023 가을 겨울의 뉴 룩, 뉴스토리.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울 소재의 브라운 컬러 코트와
팬츠, 카프 스킨 소재의 블랙
컬러 울 펌프스, 골드 실버
소재의 마베 조개 오픈스 아이링
모두 가격 미정 **보태가 배너다.**



울 소재의 브라운 컬러 재킷
2백10만원대, 울 소재의 브라운
컬러 팬츠 1백20만원대, 카프 스킨
소재의 스트랩 힐 1백40만원대
모두 **토즈**, 니트 소재의 아이 브리
컬러 터틀넥 톱 가격 미정 **아이.**



스웨이드 소재의 브라운 컬러 재킷, 니트 소재의 블랙 컬러 롱, 레이스 소재의 화이트 컬러 스커트, 브라운 가죽 소재의 블랙 컬러 펌프스 모두 가격 미정 **프루다**.



울 소재의 화이트 컬러 롱 슬리브 카디건 2백만원대, 레이스 인레이 밀크 화이트 컬러 탱크 가격 미정, 울 물란셀 소재의 밀크 화이트 컬러 탈착식 스커트 팬츠 가격 미정 모두 **렌디**, 니트 소재의 아이보리 컬러 티셔츠 가격 미정 **이미**.



핀타지 울 트윈드 소재의 재킷,
임브로이더드 칼라드 실크 새틴
소재의 팬츠, 크림우드 유광
페이퍼트 카프 스킨 블랙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사설.



코트 소재의 아이브리 컬러
싱글브레스트 코트 9백20만원,
울 소재의 체크 패턴 재킷 4백40만원,
울 소재의 체크 패턴 오버사이즈
테일로드 팬츠 1백95만원, 레더
소재의 블랙 & 화이트 컬러 미드힐 통
샌들 가격 미정 모두 구피.

헤어 마준호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Daria Klocko
스타일리스트 채완석

사설 080-200-2700
프라다 02-3218-5331
보태가 베네타 02-3438-7682
로로피아나 02-546-0615
에르메스 02-542-6622
구피 02-3452-1521
팬디 02-514-0652
토즈 02-3438-6008
아이 02-6956-8782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슬리 시슬리아 탠데그랄 앙티아주 아이 앤 립 콤플렉스 크림 노화의 징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눈가와 립 전용 안티에이징 아이림, 페르시안 아사미 추출물, 립 데마 추출물, 아스트와 콩 단백질 복합체가 세포의 생명 주기가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촉진하며,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주름을 완화한다. 또 구리, 아연, 미네랄 등으로 제작한 내장 마사지들은 제품의 흡수를 돕는다. 15ml 24천원, 문의 080-549-0216

라메르 마이크로 필 자극이 적은 필링 오일로 마라를 브로스™와 마린콜 브로스™와 오일 성분, 2개의 층으로 나누어 있다. 사용 전 손등에 부드럽게 블렌딩해 발라주면 모공 속 불순물 정체를 돕고, 모공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모공의 탄력을 개선해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30ml 35만천원, 문의 02-6971-3215

라프레리 화이트 케어아 필 인퓨전 업그레이드된 알루미네이팅 성분 루미도스™와 스위스 골든 케어아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 표면의 광채가 살아나도록 돕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해주며, 탄력을 개선한다. 또 케어아 비즈 형태의 포물라는 성체로 가벼운 질감의 정제된 질로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살카라고 우아한 필 광채를 선사한다. 30ml 1백4만천원, 문의 02-6390-1170

샤넬 리프트 프로 컨센트레이트 컨투어 엘리프나 효소 성분과 생기를 더하는 바이오플리머, 피부에 수분을 충전하는 히알루론산을 풍부하게 함유해 리프트 효과를 선사한다.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 주는 살카한 포물라로 얼굴을 더욱 또렷하게 보이도록 한다. 30ml 25만7천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

올라 B.A 크림 N 고보습 효과를 부여하여, 매끄러운 막을 형성해 수면 스킨케어용으로 제각각 나이트 케어 크림, 고농도 성분인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탄력 개선과 리프팅에 도움을 준다. 30g 가격 미정, 문의 02-772-3265

발몽 V-넥 크림 눈에 띄는 안티링클과 리프팅 효과를 선사하는 목과 턱선, 데콜테 라인 전용 재생 크림,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목 주변에 발라주 후 얼굴을 향해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 피부 표면의 재생력을 부여한다. 50ml 41만원, 문의 070-4352-5203

쁘아네 안슬라이트 세럼 데 슈 타기팅 펩타이드 콤플렉스가 눈가를 팽팽하게 당겨주어 또렷한 눈가를 선사하는 아이 전용 세럼, 투명하고 끈끈한 제형이 민감한 눈가에 빠르게 흡수되어 강력하게 탄력을 케어하며, 환목아비섯 추출 다량류 성분과 방부사탈가리스 싹 추출물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 15ml 39만원, 문의 02-310-5025 에디티 윌지엄



Renewing Moment

화장대 위에 꼭 켜져두어야 할 가을, 겨울 안티에이징 솔루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아노스틴 안티에이징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입생로랑 뷰티 푸쉬 에몰리 글로우-팩트 쿠션** 한천의 타피타인으로 추가적으로 피부에 밀착되어 하루 종일 은은한 핑시 글로 스킨을 연출한다. 더 얇아진 쿠션 케이스와 링크 레더 패치까지 고급스러운 감성을 선사한다. 12g 10만천원, 문의 080-347-0089

바버리 뷰티 얼프 및 글로우 쿠션 모노그램 컬렉션 브랜드의 아이코닉 로고인 TB 모노그램을 입은 새로운 패치가 돋보인다. 히알루론산과 제라늄 추출물을 함유한 강력한 스킨케어 성분을 담은 프리미엄 포물라 덕에 피부가 하루 종일 편안하다. 14g 9만3천원, 문의 080-850-0708

골드보 보메 레지넨트 쿠션 파운데이션 듀이 SPF 25 PA+++ 촉촉한 피부와 수분을 머금은 듯 고급스러운 광채가 흐르는 피부 표현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 불가연인 로즈 추출물이 피부를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해주며, 여러 번 레이드해도 뽕뽕 없이 발려 자전스러운 카바를 돕는다. 15g 12만5천원, 문의 080-564-7700

시슬리 워터 불블링 쿠션 듀이 브라이드 쿠션 파운데이션 SPF 50+ PA+++ 텍스처가 젤과 옥수수 녹말 성분의 조합으로 피부에 진정 효과를 증과 동시에 맑은 필름을 씌운 듯한 효과와 은은한 광채를

선사한다. 열과 염에 강한 특수 코팅 피그먼트로 오랜 시간 지속되는 효과까지 갖췄다. 15g 15만5천원, 문의 080-549-0216

자랑시 뷰티 꾸뛰르 데님 에디션 23 행 꾸뛰르 쿠션 24시간 지속되는 검증된 텍스처가 완벽한 카바와 메이크업 성분을 오랫동안 유지해준다. 특유의 하트 모양 파프는 글썩진 얼굴에 세심한 타피타 기능해 유효하다. 시그니처 로고인 4G 모노그램 패턴 케이스가 인상적. 13g 9만천원, 문의 080-801-9500

나스 퓨어 레지넨트 프로텍션 아이유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SPF 23 PA++ 파운데이션으로 메이크업한 것과 거의 동일한 카바력과 산화력을 보여주는 쿠션. 진화된 포물라에는 자외선 차단은 물론 미세 먼지 흡착 방지 기능,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까지 더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완벽 보호하는 효과까지 갖췄다. 12g 6만9천원, 문의 080-564-7700

샤넬 레베뉴 핑시 글로우 쉐이더 파운데이션 특유의 핑크빛이 들어간 피그먼트를 함유해 피부를 더욱 아려 보이게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 제스민 추출물과 오양이 풍부한 고보습 포물라는 머리는 순간 시원한 수분감과 상쾌함을 선사해 자전스러운 글로를 연출한다. 15g 10만 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에디티 성원



Blooming Face

편의성은 물론 커버력, 지속력,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까지.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쿠션의 신세계. photographed by oh hyeon sang

아노스틴 안티에이징

editor's Pick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피부 컨디션이 고민이라면, 해결책이 되어줄 이달의 뷰티템을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kim sa yun, oh hyeun sa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피 루즈 아레브 브람 #221 켈리코스 로즈 산뜻한 레드에 핑크 몇 방울을 떨어뜨린 듯한 컬러. 부탄스람이 않은 자연스러운 갈라져 앙 불에 지르처럼 사용에 생기는 얼룩을 연출하기에도 적합하다. 즉각적인 보습 효과는 5.5g 6만2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정미연

이유구스타스 바더 더 아이 패치 아이 크림을 바르거나 베는 부탄스람과 눈가 부기 좌 피로를 동시에 해결해줄 아이 패치가 필요한 철니이 제품을 만났다. 라비탈라이징 하이드로젤 아이 패치로 눈에 있는 순간 시원한 콜라겐을 선사하며, 부기 바로 개선되는 느낌. 착 알착하고 제품이 남지 흐르지 않아 불타고 다른 일을 하기에 안 성맞춤이었다. 몇 번 사용하니 눈가 확실히 시원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1set 6개입 17만1천원. 문의 02-6304-0589. by 에디터 정미연

리쥘란 UV 프로텍션 크림 하얗게 들뜨거나 끈적임 등 다른 제품을 느꼈던 아저은 부분을 충족시켰다. 비로고 나사 피부 속부터 울리오는 윤기가 일품. 또 리쥘란만의 특허 성분인 C-PORN으로 피부 개선 효과를 선사한다. 에디터가 더 떨어지지 전에 꼭 챙기는 아이템 중 하나다. 40ml 3만4천원. 문의 031-8039-1500. by 에디터 윤자영

줄라렛 헤드 어 건 러스트 포 썬 진취적이고 스타일리시함을 향으로 표현한다면, 러스트 포 썬이 떠오른다. 경쾌한 오렌지 불러싱 향으로 사색해 해가 지는 듯한 늦아름 오후 코코넛과 바닐라 향이 바람을 타고 마스코 향으로 머뭇머뭇한다. 그래픽이 선명한 오렌지 컬러에 유리 보틀로 선블라기 좋아 스카정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100ml 19만9천원. 문의 1644-4430. by 에디터 신성진

로라 메르시어 캐비어 아이크림이 펜슬 에스프리코스 브라운 염이나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첫 번째 그로로 선명한 유착력을 자랑하는 아이 템. 쥘 포플러 향과 눈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연출할 수 있으면서 고밀도 피그먼트가 한층 더 투명한 느낌으로 또렷한 눈매를 연출한다. 1.2g 4만2천원. 문의 1644-4430. by 에디터 윤자영

클로란 샴푸 리틀 펄스 샴푸 마리솔이 많아 여름에는 갈릴한 햇빛에 노출되기 쉬워 두피 및 모발에 열감이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자극받은 두피에 편안한 콜라겐을 찾고 있을 때 갈릴한 제품. 수레귀와 같이 자연 유래 성분을 담았으며 살리코, 동물성 원료, 계면활성제를 배제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피부를 갈릴한 것은 재향하며, 약산성이라 두피 마사지 시 자극이 없었다. 400ml 2만6천원. 문의 1899-4802. by 에디터 신성진

발동 오일 세뽀 마르세타오 은죽은과 진여움을 선호하지 않는 복합성 피부라 오일 사용을 자랑하는 편. 하지만 이 제품은 다르다. 기존 오일처럼 오일만 넣지 않고 피부에 바로까지 속 흡수되어 적당한 촉촉함으로 마무리된다. 자기 전, 세안 후 이 제품을 도포하면 낮 동안 자외선과 자극받은 피부가 편안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30ml 68천원. 문의 070-4352-5203. by 에디터 정미연

데코르테 AQ 애플루트 트리트먼트 아메이닝 프로텍티브 데이 크림 SPF 15/PAT+ 일과 시간에 자외선과 건조함으로 인한 피부를 보호해주는 고기능성 데이크림.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막을 형성해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한다. 무엇보다 피은 데이션 단계 전에 사용했다니 장문된 피부를 선사해 포피어 효과까지 느낄 수 있었다. 50g 2만2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윤자영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레스큐 솔루션 피부의 일상적인 붉은 기를 완화해주고, 여러 종류의 자극으로 연화된 피부를 되살려주는 세뽀. 하루 두 번 아침 저녁로 사용하니 앙 불의 열감이 감소하고 얼굴 전체에 수분감이 느껴졌다.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 꾸준한 사용을 권한다. 20ml 1만2천원. 문의 02-6871-3212. by 에디터 정미연

한스 클리앙드 아이 팔레트 01 섀도우 핑스 색조가 조화로운 아이 메이크업을 선호 하는데, 해의 팔레트에 톤톤 컬러를 도어두어 한눈에 반했다. 초가을의 잔잔한 무드를 담은 베지 브라운 컬러로 눈가 피부 톤을 정교해주는 스킨 컬러부터 차분한 브라운 컬러와 포인트 팔까지 일차게 구성했다. 아울러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성도 좋다. 6.4g 2만6천원. 문의 1644-7161. by 에디터 신성진

몰트 브라운드 와이드 민트 & 라벤더 배스 & 샤워 젤 염이 많고 더위를 잘 타는 편이라 콜라겐이 있는 보디 제품을 선호한다. 콜라겐이 있는 제품은 사용 후 다소 피부가 건조해진다는데 단점이 있는데, 이 제품은 없었다. 럭셔리한 포플러가 만자와 불순물을 깨끗하게 클렌징할 뿐 아니라 은은한 민트 향으로 산뜻하게 마무리되면서도 피부를 건조함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해 만족스러웠다. 300ml 4만2천원. 문의 070-5038-6075. by 에디터 정미연

플라워 화이트 샷 CXS N 여름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수회유체로 마백 톤닝 에센스가 필요했던 9월에 만난 뷰티템이다. 톤 다운되고 칙칙한 피부에 영감을 주는 힐링 노화까지 케어해 포괄적인 마백 효과를 자랑하는 똑똑한 제품. 좋고 투명한 텍스처로 가볍게 발라주면, 휘발성 성분 때문에 바른 직후에 살짝 따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흡수율이 좋다. 25ml 17만5천원. 문의 02-772-772. by 에디터 정미연

카멜 레아 이스 모공 피우더 클렌저 덩고 습한 날씨가 계속된다 보니 늘어난 피자와 각질 케어에 제각각 클렌저. 기류 재향의 파우더로 물 비닐에 따라 원하는 정도를 내 각질 제거제로 사용할 수 있어 마음에 들었다. 미세입자 풍부한 미온 화이트 클레이가 피부에 걸리는 유분부터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잡아주는 듯한 느낌. 100g 4만9천원. 문의 080-822-3322. by 에디터 신성진



SHOWROOM

BEAUTY

시세이도 리바이탈에센스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시세이도에서 마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을 담은 파운데이션을 출시했다. 에센스처럼 촉촉한 재향으로 피뽀를 살리며 자연스러운 커버와 광채를 선사해 하루 종일 생기 가득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지속적인 물론 스킨케어의 기능을 담은 파운데이션을 찾고 있다면 리바이탈에센스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만나보자. 문의 080-564-7700

자향시 뷰티 르 루즈 엔데르디 크림 벨벳 자향시의 랑 페르디 리온에서 새로운 벨벳 틴트를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보습에 효과적인 시아버타와 메도폴 오일 성분을 담아 입술 영랑까지 케어할 수 있다. 아울러 크리미한 재향에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으로 몽창이 나 번짐 없이 지속력이 우수하다. 클래식한 누드부터 짙은 퍼플 및 레드까지 12가지 컬러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80-801-9500

시세이도
SHISEIDO REVIITALESSENCE SKIN GLOW FOUNDATION

자향시 뷰티
L'ROUZE ENDERDI CRIM BELLET

막시마라 2023 F/W 카멜로크리시 컬렉션 이탈리아 럭셔리 패션 하우스 막시마라가 18세기 프랑스 여성 철학자이자 최초의 여성 근대 과학자인 에밀리 뒤 샤횼레에서 영감을 얻어 카멜로크리시 컬렉션을 선보였다. 그녀의 시대에 문화 선물의 지미었던 케피 하우스는 남성만 출입 가능해 그녀가 남장하고 방문했을 때 입었을 18세기 남성복을 바탕으로 볼륨 있는 실루엣과 캐주얼 컬러를 더해 새로운 컬렉션룩을 공개했다. 문의 02-511-3935

파카모 2023 F/W 뉴 르네상스 파카모가 공예와 예술의 중심 피렌체에 대한 찬사를 담아 새롭게 해석한 르네상스 컬렉션을 공개했다. 르네상스 초기 시대 화가 보타첼리, 오페라 작곡가 벨리니 등 이탈리아 대표 예술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르네상스 아카이브를 허그백, 긴치니 백 및 에바 필프스 등 다채로운 액세서리와 파카모 룩으로 선보였다. 문의 02-3430-7854

디올 레이디 디올 샴푸 트레아이션 디올이 9월 초 서울에서 개최하는 현대 아트 페어인 프리즈를 기념해 9월 2일부터 17일까지 디올 상수에서 레이디 디올 샴푸 레이션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표 아카이브인 레이디 디올의 역사와 뛰어난 장인 정신을 탄을 재해석해 선보였다. 데일리도 인기 좋은 레이디 웨이터부터 백백, 신발, 모자 등 액세서리까지 다채로운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0-1404

MCM
EXHIBITION FROM SEPTEMBER 13TH TO SEPTEMBER 17TH, 2023. MCM.COM

막시마라
MAXIMARA

파카모
PACAMO

디올
DIOR

FASHION



티파니
TIFFANY

블가리
BVLGARI

카르띠에
CARTIER

티파니 하우스 앰배서더와 함께한 새로운 티파니 락 캠페인 티파니가 하우스 앰배서더인 블라핀크 로제, BTS 지민, 가수 낸시 아즈람, 그리고 배우 플로렌스 퓨와 함께한 티파니 락 캠페인을 선보였다. 이번 캠페인 속 새로운 티파니 락 컬렉션은 18K 화이트·옐로·로즈골드와 홈-트루 퍼피 데아이드, 그리고 메탈 등 다채로운 소재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해당 컬렉션은 전 세계 티파니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tiffany.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2-6250-8620

블가리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블가리가 지중해 문화의 고대 플리워 장식을 모티브로 탄생한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를 선보인다.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마더오프얼 꽃잎과 짙은 핑크 컬러의 정스톤이 어우러져 탄생했다. 두 가지 디어 컬러와 탈착 가능한 체인이 있어 네크리스뿐 아니라 브레이슬릿으로도 착용할 수 있다. 문의 02-2056-0170

카르띠에 메종의 새로운 앰배서더, BTS 뷔 까르띠에 가 BTS 뷔를 앰배서더로 선정해 함께한 팬드 드 까르띠에 캠페인을 공개했다. 캠페인 속 뷔는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링, 메트-아-메트 팬드 브레이슬릿, 레펠 라쵸우 된 팬드 워치 등을 착용해 메종 앰배서더로서의 매력을 선보였다. 까르띠에는 다채로운 모습을 지닌 그와 함께 앞으로 많은 행보를 보여줄 예정이다. 문의 1877-4326

사벨 화인 주얼리 2023 트윈드 드 사벨 하이 주얼리 컬렉션 아시아 지역을 대표해 첫 번째로 서울에서 공개한 2023 트윈드 드 사벨 하이 주얼리 컬렉션. 화이트 라본과 핑크 캐뮬리아, 푸른 밤하늘의 별, 노란

JEWELRY WATCH

LIFESTYLE

시몬스
SIMMONS

샘스-나이트 레드
SAMSONITE

시몬스 추석 선물 아이템 제안 꿀잠을 책임지는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다가올 추석 선물로 케네사 비스코스프링 원더 필로우를 추천한다. 섬세한 자취를 갖춘 포켓스프링 기술을 적용한 비스코스프링 원더 필로우를 부드러운 고밀도 메모리폼까지 더해 경주에 편안한 C7번 재제를 유지할 수 있어 최적인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 해당 제품은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simmons.co.kr)에서 판매한다. 문의 1899-8182

샘스-나이트 레드 2023 F/W 마스트 컬렉션 출시 샘스-나이트 레드가 주얼이나 휴일에 당일치기로 떠나 는 여행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마스트 컬렉션을 출시한다. 이번 컬렉션은 백백, 토트백 및 크로스백으로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3가지 대표 제품과 슬링백 및 미니 크로스백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가벼운 나일론 소재에 생활 방수 기능을 갖추었다.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마스트 컬렉션은 샘스-나이트 레드가 주얼이나 휴일에 당일치기로 떠나 는 여행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마스트 컬렉션을 출시한다. 문의 02-2007-2943



CHANEL